



[뉴스]
오락가락 계획에
고령자 “백신거부”
AZ 불신 확산
02



	코스피 3133.73 (-29.52)		코스닥 979.77 (+2.03)
	금리 0.986 (+0.002)		환율 1107.50 (+7.40)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등 참석자들과 풍력발전기 모형을 단상에 끓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

비싼 전기료 감내해야 예산 ‘脫탄소’ 집중편성

! 이슈 짚어보기

‘탄소중립 2050’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 제로 사회를 위한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탄소 중립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하며 시기와 방법은 설정한 모습이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탄소와 정책의 관성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한다.

文정부 ‘탄소중립 2050’ 선언따라 2025년까지 그린뉴딜 73조 투입 저탄소 에너지·생태계 구축 목표

시기·방법 있지만 구체성 떨어져 탄소 위험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다.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해야 지구의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경제대국의 대응도 빨빠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1조 7000억 달러(1880조원)를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했다. 유럽연합(EU)은 그린리모델링·재생에너지·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그린딜’ 정책을 내놨다.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톤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전방위적 통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 위원은 17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0년대부터

감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특히 총배출량보다 GDP당 배출량 감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며 “총배출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한국에서도 ‘친환경 성장’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단기 고용 증가 등 성과도 있었지만 녹색성장 사업 예산 50조원 중 32조원을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투입했고 산업 생태계 형성, 관련 기술 개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7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인프라 구축·저탄소 에너지·생태계 구축에 73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65만 9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0%를 화석에너지로 태워서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구조 자체의 ‘탈탄소’ 전환이 없으면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2030년에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전·SK E&S·한화건설·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하고 원전 8기 규모의 8.2G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47조 6000억원이 투자하며 약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앞으로 10년 간 기준을 27.8% 강화 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배출 허용 온실가스 기준은 올해 km당 97g에서 2025년 89g, 2030년 70g으로 낮아진다. 내연기관의 시대는 가고 친환경 차량 보급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삼성, AI 탑재 지능형 메모리 세계 첫 개발

신개념 융합기술 HBM-PIM 공개
성능 2배 높이고 에너지 70% 감축

인공지능이 메모리 성능을 높여주는 시대가 왔다.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혁신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PI
M(프로세싱 인 메모리)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PIM은 메모리에 연산 작
업을 하는 프로세서를 결합한 신개념
융합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초고속 메모리인 HBM2
아쿠아볼트에 메모리 반도체에 PIM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엔진을 탑재해
HBM-PIM을 개발해냈다. HBM PIM
은 AI 시스템에 탑재할 경우 기존 HB
M2 대비 시스템 성능을 2배 가량 높이
면서 에너지를 70% 이상 줄여준다.

HBM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지원해



/삼성전자

서 기존 고객들도 추가 설비 없이 AI
가속기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메모리로는 한계
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기억장
치와 CPU, 입출력장치로 구성되는 ‘폰
노이만 구조’가 데이터가 실행과 저장
등 작업을 거치면서 병목 현상을 일으
키고 작업 처리도 지연됐던 것.

이에 따라 메모리 내부 각 뱅크에 인
공지능 엔진을 장착해 병렬 처리를 극
대화하면서 성능을 높이는 HBM-PI
M을 구현했다.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를 해 CPU와 메모리간 데이터 이
동을 줄여 에너지 효율도 높여준다.

삼성전자는 HBM-PIM을 제품화
하는 것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인 ISSCC에 논문을 공
개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품기획팀
장 박광일 전무는 “HBM-PIM은 AI
가속기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업계최초의 인공지능 맞춤형 PIM 솔
루션으로 삼성전자는 고객들과 지속
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PIM 애플리케
이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 CELS(컴
퓨팅, 환경 및 생명과학) 연구실장 릭
스티븐스는 “HBM-PIM은 AI 응용을
위한 성능 및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놀
라운 성과로 HBM-PIM 시스템 평가
를 위해 향후에도 삼성전자와 지속적
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비트코인
BTC
55,674,000.00 KRW
▲ +914,000.00 +1.67%

비트코인 5500만원 돌파

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밤 5550만원대까지 올랐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도 전날 밤 552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

유가 16% 곡물값 54% 급등에 라면 ‘눈치’

빵값 등 식료품 가격 줄줄이 인상
라면값 인상 땐 서민부담 비판 우려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국제유가와 곡
물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라
면 가격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업체들
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칫 가격인상을 단행할 경우 ‘서민경
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우려해 속
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16%
넘게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유가
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한 지난해 4
월에 비해서는 6배 급등했다.

식량 가격 상승폭도 심상치 않다. 지
난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
량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4.3% 오른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91.0을 기록한 뒤 8개월 연속 상승세
다. 대두 가격은 1부셸(27.2kg)당 13.72
달러로 1년 전(8.93달러)보다 53.7% 급

등했다. 옥수수 가격은 5.39달러로
40.7%, 라면의 면발을 만드는 원재료
인 소맥(밀)은 6.37달러로 16.3%, 귀리
는 3.51달러로 15.4% 올랐다.

라면을 뒤기는 데 사용되는 팜유(Pa
lm oil)의 최근 월 물 선물 가격(단위
10t)도 1017.7달러로 반년 전(741.2달
러)보다 37%, 1년 전(723.6달러)보다
40% 각각 급등했다. 팜유는 폭우로 인
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이 예상
보다 저조해 8년 반 만에 가격이 최고
치를 기록하고 있다.

라면 회사는 선물 거래를 통해 지난
해 미리 정해진 가격에 소맥을 구매해
뒀기 때문에 당장의 곡물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올라간 원
자재·곡물값은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곡물 가격
은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

영하는 뚜레쥬르는 빵값을 약 9% 올렸
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2월
부터 햄버거와 디저트 등을 포함한 25
종의 판매 가격을 올렸다. 한국파이헛
도 최근 ‘치즈포켓 엣지’ ‘블랙 알리오
엣지’의 미디엄(M) 사이즈 가격을 600
원, 라지(L) 사이즈는 1000원 각각 인
상했다.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라
면 원료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라면업
계의 라면 값 인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
다.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
이지만, 인상요인이 역대급으로 산적
해 있는 한 가격 인상이 고려대상인 것
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농심은 지난 2016년 이후 신라면 가
격 인상을 하고 있지 않다. 오뚜기는
2008년 이후, 삼양식품은 2017년 12개
제품을 인상한 뒤 가격 동결을 유지하
고 있다.

/3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